

켜켜이 쌓인 붉은 절벽위로 부서지는 햇발 물은 하늘을 품고 바람은 세월을 노래하네



오는 23일 42년 만의 화순 이서적벽 개방을 앞두고 망향정을 찾은 시민들이 눈앞에 펼쳐진 절경을 감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적벽동천(赤壁洞天). 적벽은 신선의 세계와 다르지 않았다.

붉은 절벽 위로 하오의 햇발이 쏟아져 자 켜켜이 층을 이룬 단애의 절경이 드러났다. 불어오는 바람에 수면에 어린 풍광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붉은 절벽이 하늘과 바람, 푸른 물과 어울려 한 편의 수묵화를 이루었다.

화순 이서적벽의 빛깔이 42년 만에 풀린다. 지난 1973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물민에 한해 설, 추석, 한식 날에만 벌초·성묘를 허가하고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돼 왔다. 광주시와 화순

42년만에 개방 ... '조선 10경' 화순 이서적벽 가보니

길이 1.7km·높이 80m ... 하늘·호수 사이 아담한 병풍
광주시·화순군 오늘 협약 23일 개방 '이서적벽제' 개최

군은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하나로 동북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이서적벽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 시군은 6일 개방 협약을 맺고, 23일 현장에서 개방 행사와 함께 '이서적벽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화순 이서면에 자리한 '적벽'(전남도 기념물 60호)은 삼국지의 적벽대전(赤壁大戰)과 이름이 같다. 적벽은 산자락과 호수를 따라 7km 가량 펼쳐진 붉은 기암괴석을 일컫는다. 흔히 이서적벽, 보산적벽, 장랑적벽, 물염적벽을 아울러 화순적벽이라 명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 절경은 이서적벽이다.

지난 2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2년 만의 공개를 앞두고 이서적벽으로 가는 임도 4.8km와 인근 망향정을 부분 개방했다. 기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도움을 얻어 모터보트에 승선, 그동안 만발지에서 보았던 이서적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서적벽의 절경은 수려했다. 가을 햇살을 받아 수면은 정밀하게 빛나고, 울창한 산세는 다함없이 부드러웠다.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인 모습 이 하늘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었다. 말 그대로 푸른 물빛과 정밀하게 층을 이룬 단애는 조선 10경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한 승경(勝景)이었다.

이곳이 적벽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사연은 이렇다. 1519년 기묘사화 후 동북에 유배 중이던 광양 출신 문신 최산두(1483~1536)가 이곳의 절경에 반했던 모양이다. 그는 뛰어난 문장과 덕행으로 홍문관을 거쳐 호당에 올랐으나, 피비린내 나는 사화(士禍)의 광풍을 피하지 못했다. 동북에 유배된 그는 이곳에 은거하며 정진적 자유를 누렸다. 동북 일대의 기암괴석을 보고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떠올렸던 그는 '조선의 적벽'이라 이름하였고, 이후 이곳은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시재가 되었다.

눈앞에 펼쳐진 이서적벽은 대략 1.7km 길이에, 높이는 80m에 이른다. 하늘과 호수 사이에 아담한 병풍이 가로지른 형국이다. 백야산에서 발원한 동북천이 향리 형상의 웅성산을 휘돌아 나오면서 이룬 절경이다. 온후한 산세와 맑은 물과 사계의 시간은 그렇게 걸작을 만들었다.

▶2면으로 계속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황병서·최룡해·김양건 北 핵심 실세 訪南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10월말~11월초 개최 합의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의 핵심 실세들로 구성된 최고위급 인사들이 4일 오전 인천아시아인 게임 폐막식 참여를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다. <관련기사 3면>

북측 대표단은 이날 낮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가진 오찬회담에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 남북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대화 복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악화일로로 걷던 남북관계는 일단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찬을 겸한 회담에서 북측은 우리가 제안했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 초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대표단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주 남북관계도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양건 비서는 "이번 기회가 우리 북남 사이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왔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의 박근혜 대통령에 방은 이뤄지지 못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실 용의가 있었으나 북측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와 시간 관계상 청와대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 대표단은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는 갖고 오지 않았다.

북한 대표단은 이어 폐막식을 관람한 뒤 밤 10시25분께 12시간여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길에 올랐다. /연합뉴스

여수 박람회장~문화전당~전주 한옥마을 관광벨트 구축

광주·전남·전북지사 회동

'호남권정책협' 6년만에 가동

민선 4기 이후 중단됐던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6년 만에 부활했다. 인구 감소에 장기간 정책·사업·예산·인사 등에서의 소외까지 겹치면서 쇠락 위기에 처한 광주와 전남·전북이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윤정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지사는 5일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중단됐던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2면>

호남권 시·도지사들은 12개 제안사업이 포함된 상생협력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며 공조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우선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을 만들어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또 소속 4·5급 직원 대상으로 1~2년간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도·시립 공연예술단도 교류 공연을 갖기로 했다.

호남권 관광벨트도 새롭게 구축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거쳐 전주 한옥마을에 이르는 관광벨트를 개발하고 호남 방문의 달을 정해 공동마케팅에 나서는 등 '화합'의 시너지를 높이기로 3개 시·도가 합의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정책협의회 활성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520여만명의 호남권 변역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호남권 상생협력 과제 12건이 제시됐다.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협력방안' 등 4건, 전남은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정' 등 4건, 전북은 '서해안(군산~목포간)철도 건설 호남권 공동대응' 등 4건을 각각 제시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0회 총동문체육대회

- 일시 : 2014. 10. 18 (토) 09:00
- 장소 : 모교 운동장(공평대)
- 전화 : 062)520-4555

광주시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손정선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19일(주일)~22일(수요일)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문의: 062)605-1000

광신대학교

예능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10월호

9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문화전당 에너지 받아
진화하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그랜드플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광 눈 앞, 아시아문화전당과
새롭게 그려가는 광주문화 지형도

레디, 액션!
남도는 영화 촬영중

영화 촬영지로 주목받는 전남의 매력
해남, 진도, 완도 '명량 효과'에 인기 급상승

특집

기획

문화속으로
남도의 가을, 축제가 열렸네
다양한 테마의 광주·전남 축제 소개

해외문화기행
대만 타이베이 시립동물원
아생 달은 사육환경, 이것이 동물 복지

예향 초대석

**민중 사학자 이이화의
역사를 보는 해안**

"동학정신으로 오늘의 문제
밝혀야 합니다"

마주 읽은 책과 삶
문필가로 다시 돌아온
유시민의 근황과 책이야기

이달의 아티스트 | 국악인 오정해

서편제와 운영적 만남 이후 21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 온 무대들

만민클럽
반노도 스트레스도 단칼에 '압'
기자자동차 광주공장 해동검도동호회

스포츠 이야기
3년 연속 4강 탈락, 기아타이거즈
"바닥 쳤으니, 이제 일어서자"

스타 데이트
영화 '두근 두근 내 인생'
아버지로 열연한 배우 강동원
"관객의 가슴 따뜻해졌으면 했어요"